

남해군 '이순신 전국 백일장·그리기대회' 성황

윤 박춘성 기자 | 승인 2023.10.18 21:28

가족단위 여행지 육성 목표 세워
300여명 참여에 외지인 절반 넘어



'2023 이순신 전국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마술공연을 보고 있다.

남해군 이순신순국공원 호국광장에서 지난 14일 열린 '2023 이순신 전국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이순신 순국공원을 가족단위 여행지로 더욱 육성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곳곳의 초등학생들이 모여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일장 대회는 동시와 산문 분야, 그리기는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 대상 상상화와 고학년(4~6학년) 대상 사생화 분야로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또한 연 만들기 체험, 한지부채 만들기 체험, 캘리그래피 체험, OX 퀴즈, 마술공연, 지역민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전체 3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참여했으며, 이중 남해군 외 타 지역 참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순신순국공원의 명성과 대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성 기자